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10년: 읽기 및 쓰기 관련 연구 회고

송민중, 임정완*

성결대학교, 대구대학교

Song, Minjong & Lim, Jeongwan. (2010). A critical review of reading-and-writing-related studies in *Modern English Educ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60-81.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iteracy-related articles in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Education* in commemoration of its 10 years of history (2000-2009). A total of 38 literacy-related papers (15.8%) out of 240 have been published in the last ten years. The researchers reviewed the papers in terms of three perspectives: The main research topics, the subjects' levels of proficiency,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research on reading has been productive in the area of skills and strategies, and that on writing, teacher/learner variables such as learner's traits, teacher's perspectives, teacher-learner interaction, peer learning, and writing evaluation. This review indicated that more research on the use of teaching media should be required in the reading area and that on the use of internet and computer technology, and interrelationship with other language skills in the writing area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review showed that the subjects were pretty skewed, mostly conducted with college levels. Therefore, the future research should more balance the subjects' levels. Also should be required more qualitative research and integration of qualitative-and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reading area, and more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writing area.

[literacy-related /research topic/subjects' levels of proficiency/research methodology/문해 관련/연구 주제/연구 대상자 수준/연구 방법]

I. 서론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읽기와 쓰기는 모국어로나 외국어로나 자연스런 노출을 통해 습득되는 말하기나 듣기와는 달리 노력을 요하며 보다 복잡한

* 교신저자.

사고의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언어 기능이다. 읽기는 독자가 글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언어 지식 및 선행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따라 글쓴이의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연희, 전은실, 2006). 쓰기는 낱말, 어구, 문장을 보고 베껴 쓰는 것에서부터 이들을 자신의 힘으로 표현하는 능력, 즉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박혜숙, 2006). 한편, 읽기와 쓰기는 의미 구성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연구(Ferris & Hedgcock, 1998; Shanahan & Lomax, 1986)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읽기와 쓰기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 학술지 10주년 기념 논문으로, 2000년 12월 창간 후 2009년 12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게재되었던 논문 240편 중 읽기 및 쓰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문해 교육 관련 학술 활동 경향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할 때 주요 주제 분야, 수준별 연구 대상자, 연구 접근 방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영어 읽기와 쓰기에 관한 연구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어 읽기와 쓰기에 관한 게재 논문들이 주제, 수준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등에서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가?
2. 게재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였을 때 어떤 교육적 함축을 도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II. 연구 방법

1. 대상 논문 선정

현대영어교육학회가 창간호를 발행한 2000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현대영어교육*에 발표된 영어 읽기와 쓰기 관련 논문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술지의 목차와 초록에서 ‘독해’, ‘독자’, ‘독서’, ‘읽기’, ‘쓰기’, ‘작문’, ‘저자’, ‘문해교육’ 등의 우리말 용어가 포함되었거나 ‘reading’, ‘reader’, ‘readability’,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strategy’, ‘writing’, ‘writer’, ‘writing strategy’, ‘literacy’, ‘text’ 등의 영어 표현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읽기와 쓰기 관련 논문을 총 38편 찾을 수 있었다.

2. 논문 분석 방법

총 38 편의 논문을 저자, 권(호), 년도, 제목,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토대로 엑셀파일로 정리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읽기와 쓰기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가 매우 상이하여 따로 분리해서 유형화할 수 밖에 없었다. 선행연구 중 포괄적으로 주제 분류를 시도한 유현정(2006), 강동호(2006), 오준일(2006)의 논문을 참조하여 논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주제들을 유형화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 분류하였다. 먼저 읽기 관련 논문은 첫째 이론 중심의 연구로서 문헌을 통한 문자와 읽기 지도 연구, 둘째 교수방법과 학습자 변인인 독해 기술-전략지도 및 평가에 관련된 연구이고, 셋째 컴퓨터를 활용한 읽기 연구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쓰기 관련 논문은 첫째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 연구, 둘째 과정중심 연구, 셋째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연구, 넷째 결과 중심과 과정 중심 통합 연구, 다섯째 결과 중심과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통합 연구,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과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통합 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면에서는 읽기와 쓰기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등, 중등, 대학교와 일반 수준으로 나누었고, 연구 방법은 이론 및 문헌제시로 이루어진 연구, 정량적 연구, 정성적 연구, 그리고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의 통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III. 조사 결과

1. 주제 분야별 분류

1) 읽기 관련 연구 논문 분석

총 20 편의 읽기 관련 논문들은 표 1 과 같이 읽기 관련 이론 연구 5 편, 읽기기술과 전략 관련 연구 9 편, 교육매체 활용 읽기 교육 6 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1
읽기 관련 주제별 분류

주제	빈도(%)
읽기 관련 이론 연구	5(25.0)
읽기기술과 전략 관련 연구	9(45.0)
교육매체 활용 읽기 교육	6(30.0)
합계	20(100)

(1) 읽기 관련 이론 연구

독해이론 연구는 2000년 창간호에 실린 김형엽(2000)의 연구가 최초로 영어 알파벳 철자들의 유래에 관해 논하고 있음을 시작으로 오관영(2001)의 스키마이론 연구, 조기 영어교육 방안을 제시한 이명신(2005)과 초등영어 교육 방안에 관해 논의한 김현진(2005) 및 정영숙(2008)의 연구가 있으며 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엽(2000)은 창간호에서 처음으로 현대영어의 문자체계의 주를 이루는 알파벳 철자들의 유래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영어의 문자 체계는 특정 집단의 노력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문자 모양이 형성되었다는 것과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던 문자들은 최초에 의미를 가리키는 그림문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글자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오관영(2001)은 제 2 언어 독서 연구에 있어서 스키마이론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문헌 연구를 통한 스키마 이론의 성립과 개념, 기억과정과 스키마의 기능, 독해과정과 스키마의 작용, 그리고 스키마 이론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정영숙(2008)은 읽기와 쓰기에 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기존의 알파벳 지도 방법을 조사하고, 초등영어 교과서와 국내외 알파벳 지도의 경향을 살펴본 후 아동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으며,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알파벳 지도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육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알파벳 지도 방안을 모은 결과로서 단지 초보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이러한 기법이 아동의 알파벳 습득에 얼마나 효과적인 지에 대한 검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 후속 연구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알파벳 지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업 모형과 지도안을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읽기 관련 연구에서 이명신(2005)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조기 영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영어 노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영어 그림책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내용 중심의 영어 교수법에 대한 방안을 총체적 교수방법, 자연교수법, 전신반응교수법, 내용중심 교수법의 통합교과적 지도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영어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김현진(2005)은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초등 영어 문자언어발달을 위한 읽기와 쓰기 교수 책략을 제안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영어교육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기술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비율과 연계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 8 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통합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읽기 기술과 전략 관련 연구

두 번째로 교수방법과 학습자 변인에 해당하는 읽기 기술과 전략 관련 연구는 총 9 편으로 다독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적 독해 접근 방법(이화자, 김미정, 2007; Minjong Song, 2007b), 읽기 과제의 난이도와 추론 기능 지도(김정렬, 신지연, 2009; 임혜정, 2009)와 읽기와 쓰기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손승희, 2005)가 있으며 평가문항 난이도 예측 변인 연구(정희정, 김지영, 2008)와 어휘 학습(정대성, 2000; 현대덕, 2007; Kyu-Cheol Shin, 2003)에 관한 것이었다. 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화자, 김미정(2007)은 중학교 2, 3학년 21 명으로 구성된 특별활동반의 일환인 영어다독반을 대상으로 5 개월간 수준별 다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독서 수준과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언어 기능에 대한 양적 향상도를 살펴봄으로써, 수준별 영어다독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로는 독서면접평가 결과에 의하면 모든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독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 수준별 영어 다독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Minjong Song(2007b)은 상호작용적 독해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다이얼로그 저널의 사용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총 207 명의 대학교 1 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한 학기간 다이얼로그 저널 사용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해 본 결과 실험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는 입증되지 못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의 전공에 따른 독해력 향상 정도는 각각 달리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추후 후속 연구로 더 많은 것들이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임혜정(2009)은 고등학생의 영어성취도와 읽기 과제의 난이도가 독해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의 독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제 요인이나 학습자의 성취도에 따른 독해 전략사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독해 수업 및 전략지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28 명의 학생들이 33 개의 독해 전략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답을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쉬운 과제에서는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독해전략 사용을 줄일 수 있었고, 어려운 과제에서는 전략을 늘리는 것이 독해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하위집단이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존의 선행연구(Oxford, Cho, Leung, & Kim, 2004)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취도별 독해 전략 사용 항목은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김정렬, 신지연(2008)은 추론 기능을 활용한 실험 수업이 고등학생의 수능 외국어 영역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64 명의 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비교하여 10 주간 실험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학습자들의 추론 기능 능력을 훈련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읽기 성취도에서 더 큰 향상을 가져 왔으며, 추론 기능을 익히기 위한 유의미한 읽기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수동적 학습이 아닌 자기 주도적 읽기 학습을 유도하고 읽기 기능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읽기 교육에 있어 추론 기능 능력을 배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손승희(2005)는 제 7 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중 읽기와 쓰기 영역의 학년별 성취 기준을 알아 보고, 총 93 명의 초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의 문자 언어능력 수준을 설문 조사를 통해 진단하였으며, 읽기와 쓰기 교육을 받고 있는 총 132 명의 초등학교 5 학년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문자 언어의 시작 시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초등학교 3 학년생들은 대부분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간단한 단어의 읽기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초등학교 5 학년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 3 학년 시기부터 알파벳을 읽고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읽기와 쓰기의 도입은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시작하여도 무방하고 각 학년별 성취 기준을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희정, 김지영(2008)은 국내 사교육기관에서 전국 중학생 2,01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능력 평가 60 문항 중 읽기능력 평가에 대한 30 문항의 결과를 수집하여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어 난이도를 예측하여 평준화된 문항을 개발하려 했다. 연구의 결과는 분위기 이해, 사실적 이해, 단어 이해, 구 삽입, 글의 순서, 지시어의 이해 등에 관한 변인은 문항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고, 추론과 관련된 변인이 난이도를 쉽게 만드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난이도 예측 변인을 문항 관련 변인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지문 관련 변인과 지문과 문항에 중복 관련된 변인을 찾아서 연구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으로 읽기 교육 관련 연구 논문 중 어휘교육 관련이 3 편이 게재되었는데, 정대성(2000)은 제 2 언어습득에 있어서 연어(collocation) 지식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연어 지식 발달이 전체 언어능숙도 단계에 걸쳐서 안정적인 연어지식의 발달형태가 있고, 각각의 언어능숙도 단계들 내에서도 안정적인 연어지식의 발달형태들이 있음을 고등학교 1 학년생(후기 초보자), 2 학년생(중간 단계), 3 학년생(후기 중간 단계)으로 각각 다르게 구성된 3 집단의 총 275 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ANOVA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실제 읽기나 쓰기교육에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연계시키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Kyu-Cheol Shin(2003)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 다독을 통한 어휘 습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각각의 35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두 집단, 즉, 토익 읽기 구문으로 정독(intensive reading)을 한 비교집단과 이야기책으로

다독(extensive reading)을 한 실험집단을 4 개월간 비교한 결과 어휘 습득에 있어서 실험집단이 더 큰 효과를 거두었고, 정의적인 관점에서 다독을 한 실험집단에 읽기의 재미와 정보가 제공되었기에 읽기 능력을 더 많이 획득할 기회가 있었으며,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다독이 어휘 습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혀내고, 읽기 수업에서 다독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태덕(2007)은 언어의 학습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에 관해 논하고 있다.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 개월 동안 언어학습을 한 실험반 33 명과 기존의 수업 방식으로 한 34 명의 비교반과의 비교를 ANOVA 분석을 통해서 언어학습이 영어 능력향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 연구의 결과는 언어중심의 실험 수업이 비교반보다 영어 능력의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밝혀졌으며, 언어를 잘 학습해 두면 영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필고사의 성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도를 검증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지필고사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 읽기인지 쓰기인지 그 언어기능별 구분을 알 수가 없어 아쉬웠다.

(3) 교육 매체 활용 독해 효율성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은 총 6 편으로 이전의 컴퓨터 활용 영어 교육에 대해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진 것과는 달리 2000 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인터넷 활용과 같은 구체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모두 대학에 근무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는 주로 대학생들에 국한되어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고 연구가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대학 교양영어 독해 수업 관련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어 주제 면에서도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석진이(2005)는 인터넷을 활용한 대학 교양 영어 수업의 사례 연구를 19 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연구하였다. 한 학기간의 교양 영어 수업을 인터넷을 사용하여 한 것에 대해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 설문조사와 학기 말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또한 테크놀로지 사용을 Hughes(2000)의 3 가지 유형(대안, 확충, 변환으로서의 테크놀로지)으로 구분하였고, 그녀의 연구에서 보여진 테크놀로지 활용은 대안과 확충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는 많은 학생들이 전자 문해 능력(electronic literacy)이 미진하였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은 활발히 하고 있었으나, 영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터넷 영어 수업을 통해 영어 검색 활동을 한 것은 유용한 경험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제약이 많은 온라인 상의 채팅을 통한 토론 보다는 면대면 토론을 더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제언으로는 인터넷 활용 영어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나 과 차원에서 커리큘럼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주제를 한 학기에 너무 많이 다루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무리가 따르므로, 보다 안정된 교육철학과 원칙, 방법, 테크닉을 기반으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예진희(2004)는 한 전문대학의 온라인 실용 영어 강의를 분석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웹기반 실용영어 강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듣기와 말하기교육에서는 원어민 발음을 콘텐츠에 삽입하여 교육할 수 있어서 학습자와 강사의 편의성을 높인 반면에 강사의 면대면 수정이나 지도가 불가능하고 개인별 학습만 가능한 것이 단점으로서 온라인 교육방법인 실시간 대화 등을 통해 별도의 연습과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읽기와 쓰기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수준별 개별 학습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Q&A 게시판 등의 활용이 필요하고, 추가 학습이 필요한 학습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복명(2005)은 한국대학생들이 아시아권 학생들과 CCDL(Cross-cultural Distance Learn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음성 채팅과 문자채팅, 전자메일 활용하기 등을 통하여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접함으로써 세계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CDL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였다. 또한 남서울대학교(한국), 와세다대학교(일본), 후단대학교(중국), 한남대학교(한국)가 연계하여 비디오 컨퍼런싱 수업을 하고, 이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다른 나라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좋았고, 영어 능숙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음 CCDL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학생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명관(2006)은 웹을 활용한 영어 읽기 수업이 대학생의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총 64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 구성된 웹을 활용하여 독해 수업을 한 실험반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독해 수업을 한 통제반으로 나누어 15 주간 실험수업을 하고 난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웹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수업방식임이 밝혀졌다. 즉, 학습자의 흥미도와 유용성에 대한 기대도, 참여도에서 실험반이 통제반보다 높은 동기를 보여주었다.

이현정, 정동빈(2008)은 웹 기반 UCC 과제활동이 대학생의 영어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정의적 영역에서 조사하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 하였다. 총 63 명으로 구성된 대학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12 주간의 실험 수업을 하고 난 후 설문조사와 면담, 소감문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학습 사후 성취도 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반이 말하기 표현력에서 통제반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평균점수를

통해서 쓰기 표현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집단은 모두 흥미도, 참여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자신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으로 조사되었다.

정동빈, 김혜경(2009)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도구(CMC)를 활용하여 읽기 및 쓰기가 통합된 토론활동을 적용하여 면대면 구두토론 방법과의 학습 성취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총 62 명의 대학생들을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실험한 결과 CMC 를 활용하여 문자 의사소통 중심의 읽기 전, 후 토론 활동을 수행한 실험반이 구두 의사소통 중심의 읽기 전, 후 토론 활동을 수행한 통제반에 비해서 읽기성취도에 향상을 보임을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성적에서 입증하였고, 읽기 성취도의 차이가 상, 하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상위 수준 학생들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수준 학생들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영어의 수준에 따른 CMC 활용 읽기활동의 효과성이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CMC 선행 연구에서 주로 표현적 언어기능의 측면에 대한 연구로 집중된 것에 비해 CMC 와의 통합을 통한 보다 능동적인 읽기 교수, 학습 설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2) 쓰기 관련 연구 논문 분석

총 18 편의 쓰기 관련 논문들은 표 2 와 같이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의 접근법 연구 3 편, 과정 중심 접근법 연구 2 편, 교수/ 학습자 변인 중심 접근법 연구 8 편, 두 종류의 주제 분야에 걸친 연구 5 편으로 집계되었다.

표 2
쓰기 관련 주제별 분류

주제	빈도(%)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	3(16.7)
과정 중심	2(11.1)
교수/ 학습자 변인 중심	8(44.4)
결과 중심과 과정 중심의 통합	1(5.6)
결과 중심과 교수/ 학습자 변인 중심의 통합	2(11.1)
과정 중심과 교수/ 학습자 변인 중심의 통합	2(11.1)
합계	18(100)

(1)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의 접근법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 접근법의 논문은 총 3 편으로, 이현구(2000, 2001)와 윤성규(2004)는 각기 한국 대학생들의 작문이나 작문과 회화에서

나타난 국어와 영어의 언어학적 차이점 및 결과 중심의 오류 분석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현구(2000)는 대학생들의 영어 자유 작문에서의 관사 오류를 분석하여 그 유형과 원인을 조사하여, 영작할 때 효과적인 관사 사용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관사에서는 생략형 오류가 가장 빈번했는데, 이는 기초 수준의 학생들이 모국어 규칙에 의존함으로써, 언어 간 전이에 의해 발생함을 지적해 준다. 또한 첨가형이나 대치형 오류들은 목표언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전이 현상에 기인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목표언어 내에서의 전이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영작을 교수할 때 바로 영작 지도에 들어가지 말고 우선 학습자들의 문법 수준을 진단하고 그들이 자주 범하는 문법적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듬해 이현구(2001)는 대학생들의 영어 자유 작문에서의 전치사 오류의 유형과 원인들을 조사하여, 영작에서 효과적인 전치사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유형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생략형 오류, 첨가형 오류, 오용형 오류 등이었다. 이는 기초 영어 수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생략형 오류의 경우는 모국어에 의한 언어 간섭 현상에 그 원인이 있다 볼 수 있으며, 첨가형이나 오용형 오류는 목표언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전이 현상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전치사의 용법을 교수할 때, 생략형 오류는 대조 분석의 타당성과 장점을 살려 활용하고, 첨가형이나 오용형 오류인 경우에는 교수, 학습시 철저하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성규(2004)는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작문과 회화 과정에서 생기는 주된 오류들을 언어학적 분류에 따라 그 유형과 원인들을 조사,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주된 오류 유형은 모국어 전이, 규칙의 과대적용, 단순화 및 화용적/사회언어학적 오류 등이었다. 다시 말해, 모국어와 목표어의 언어간 전이뿐만 아니라 목표어에서의 언어 내 전이에 의해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의 오류 연구 분석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모국어 전이나 심리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언어 내 오류라는 관점에서뿐 아니라 학습자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과정 중심 접근법

과정 중심 접근법의 논문은 2 편으로, 둘 다 피드백 효과를 다루고 있다. 먼저, Jeongwan Lim(2007)은 제 2 언어 작문 피드백 연구에서는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에 중점을 두어, 각각 피드백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연구한다고 논한다. 기존 논문들의 실험 연구 결과,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중 어떤 것이 ESL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지 결정짓기는 어려운데, 이는 현재까지의 실험 증거물이 제한적이고 때로는 서로 간에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Minjong Song(2008)은 대화식 일지 쓰기가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작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 측정 문제 응답하기와 비교하여 조사하고자 했다. 사전, 사후 시험용 두 편의 작문으로 작문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지 쓰기 집단이 더 큰 향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부수적으로 참여 교사, 피실험자들의 전공분야, 교사와 실험/통제 간의 상호작용 등이 각각 작문 능력 향상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했다.

(3)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접근법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접근법의 논문은 총 8 편으로 쓰기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특성(Eunsook Shim, 2001; Eun-Mi Yang, 2007), 동료 상호작용(Kyu-Hwa Kim, 2008), 언어학적 관점의 영작자료 분석(Jayeon Lim, 2008), 교실 환경 및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Jong-Hee Lee, 2008), 영작 교사의 관점(이지연, 2009; Eunsook Shim, 2009), 영작 주제와 학습자 전공(Ock-Mo An, 2009) 등이 있다.

먼저, Eun-Mi Yang(2007)은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작문 실력의 두 측면 즉, 학생들의 모국어 및 제 2 언어 작문에 대한 선호도와 제 2 언어 작문실력 간의 관계 및 제 2 언어 작문 시 모국어의 상이한 사용 전략을 조사,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모국어 작문 선호도는 제 2 언어 작문 선호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국어 작문 선호도와 제 2 언어 작문 실력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컸다. 또한, 제 2 언어 작문 과정에서 학생들의 모국어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번역 전략 채택 방법도 실력에 따라 달랐다. 즉, 저급 실력 집단에서는 모국어에서 제 2 언어로의 지필 번역 전략에 많이 의존했으며, 제 2 언어 작문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신적 번역 전략으로 나아가다 마침내 제 2 언어로 직접 쓰게 되었다.

Kyu-Hwa Kim(2008)은 통합적 기능 접근법에 근거한 작문 과제가 초등학생 작문 행위에 미친 효과를 조사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통합적 기능 접근법에 근거한 과제가 분리 기술 접근에 근거한 과제에 비해 학생들의 태도와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영어교재개발자들은 통합적 기능 접근법에 근거한 과제를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자중심의 영작 과제를 마련해줄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내어 영작물들을 많이 생산케 할 것이라 제안했다.

Jayeon Lim(2008)은 학생 작문을 세가지 측면 즉, 현재완료 형태 표시, 현재완료 형태와 의미상과의 관계 및 부사와 더불어 사용한 현재완료 형태 등에 관해 조사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고급 제 2 언어 학습자들은 현재완료의 사용을 부사나 의미상과 항상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단계의 학습자들이 영어 현재완료를 사용함에 있어 원어민 수준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미정임이 드러났다.

Jong-Hee Lee(2008)는 성취목표 이론이 한국의 비평적 독해작문 교육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지 조사하고자 했다. 성취목표 이론은 Gardner 의 동기 이론(Gardner & Tremblay, 1994)과 부합되는데, Gardner 이론의 함의에 따르면 한국 학교 내에서는 교사/학생 간의 위계적 관계 존재와 권위적 교실 교육으로 인해 지식이 하향적으로 전수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학생들에게 비평적 독해작문 기술을 추구케 하는 성향들 즉, 과제 지향 및 자아지향 목표 추구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목표 지향 이론은 한국 EFL 상황에서의 비평적 독해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unsook Shim(2009)은 한국의 EFL 상황에서 중등영어 교사의 작문교육에 대한 견해 및 작문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고자 했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등영어 교사들이 자신의 예전 작문 경험에 대한 소고를 쓰고 설문지에 답하였다. 그 결과 교실에서의 작문 교육 시, 작문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동기 부족, 교육과정에서 작문교육에 대한 다급한 필요성 부재, 작문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음, 작문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제한됨 등이 장애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작문기술이 꼭 필요하고도 도전적인 언어기술이라고 인식했고, 작문 교육에 대한 자원을 더 많이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작문 교육에 중점을 둔 직전 및 직중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ck-Mo An(2009)의 연구 목적은 첫째, 호텔 투숙객이 쓴 불평 편지를 사실적으로 분석하여接客 분야 학생이 손님의 불평을 편지로 공손하게 처리하도록 돕고자 했고, 둘째, 불평의 전반적 화행을 찾아내어 투숙객 불평의 종류와 강도를 정해 현장에서의 객의 불평에 대해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불평 편지의 코퍼스 분석 결과, 세 개의 화행 즉, 불평, 근거(또는 정당화), 요구가 불평의 주요 요소임이 드러났다. 또한 불평의 전반적 화행 분석 결과, 강도가 약한 편지와 강한 편지의 불평 양식이 드러났다. 약한 편지에서는 인사, 정형적 격식 형태의 문장 즉, 근거-불평-요구, 감사와 인사의 표현을 첨가한 끝맺음의 순서로 이어진다. 한편 강한 편지에서는, 시작부터 불평이나 위협이 나오므로 답신을 보낼 땐 그 불평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지연(2009)은 한국 중등 영어교사들의 작문 채점 중 행위를 알아내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채점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밝혀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점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의존함을 보였다; 채점 동안 내내 척도에 따르지 않았다; 척도 내의 몇몇 기술어는 종종 이해하지 못했다; 한 작문의 첫 인상이 종종 채점에 영향을 미쳤다; 때때로 후광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채점 행위를 반영하고, 테스트의 타당도, 채점자 내 및 채점자 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Eunsook Shim(2001)은, 한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 각자의 논문 초록에서, 수사학적 구조와 주장할 때의 공손 전략을 조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수사학적 구조는 둘 다 결과와 결론(논의) 부분에 있어 순환적 양식을 보인 반면, 주장할 때의 공손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인 학생은 얼버무리면서 주장을 했고 한국인 학생은 직설적인 주장을 했다. 즉 미국인 학생은 학문공동체에 자기주장을 내세울 때의 적절한 태도로써 조동사 'would', 수식어 'probably', 'suggest'와 같은 약한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조동사나 수식어를 사용치 않았다. 이는 한국 학계가 직설적 주장을 선호하는 현상 중 하나로서, 얼버무리기 주장할 때의 공손 전략이란 것을 인지 못하고 개인적 의구심의 표현이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영작문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영어권 학문공동체의 관행에 알맞게 주장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의 접근법과 과정 중심 접근법의 통합

Minjong Song(2007a)은 결과 중심의 오류 수정과 평가를 함과 더불어 내용 위주의 피드백 효과를 논의한다. 연구 목적은 과정 중심의 작문 연습이 한국대학생들의 작문의 질과 작문에 대한 염려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 작문 연습과 비교 조사하는 것인데 그 결과, 과정 중심 작문을 연습한 학생들이 통제 작문을 연습한 학생들보다 작문의 질이 좀 더 향상됨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전자 학생들이 후자 학생들보다 작문에의 염려도가 더 낮아짐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한국대학생들에게는 과정 중심 작문 연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5) 전통적 언어학적 결과 중심과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접근법의 통합

이 두 접근법의 통합을 시도한 논문은 2 편으로 먼저, 김형엽(2006)은 영어교수에서 작문을 다룬 방식들을 교수법들의 통시적 발전과정에 의거하여 살펴본 다음, 교사 및 학습자 개개인의 상호작용, 동료학습, 작문과정 연습, 영작 주제, 영작교사의 관점 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작 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교육방법론을 찾아보는 것인데, 그 결과 상호협조 영작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 과정에서 공동협력자인 교수는 청자이자, 조연자로, 조사자이자 평가자로서 교실 밖 학생과의 면담을 가져야 하며, 또한 작문의 구성 지도 시 학습자들이 학문수행 위주의 작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과 과정-결과 방식을 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편, Sookyung Cho(2009)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영작 자료를 분석 연구한 다음, 영어 접속사 교육 실시 결과를 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제 2 언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작문 실력이 문장 접속사 사용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둘째, 접속사 교육이 그 사용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첫째 결과로 좀 더 고급 수준의 참여자들은 저급 수준의 참여자들보다 문장 접속사를 덜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문장 접속사 남용 경향은 ESL 학생들의 작문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감소됨을 지적한다. 둘째 결과로 접속사 교육이 저급 수준의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남용 경향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의 실험은 교육받지 못한 통제 집단과 교육받은 실험 집단 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는 낳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은 학습자들의 접속사 사용을 좀 더 고급 수준 학생들의 사용 경향으로 향상시켰다.

(6) 과정 중심 접근법과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 접근법의 통합

이 두 접근법의 통합을 시도한 논문은 2 편으로 먼저, 최선겸(2001)은 쓰기의 생성과정 및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영작 자료를 분석, 기술한다. 영어 작문 과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23 편의 자료(단락)를 분석 기술함에 있어서, 이론에서는 글 전체의 구성, 단락, 문장, 어휘선택, 작문의 종류와 지도 지침 등을 다루고, 단락 분석에 있어서는 작문의 종류, 주제문의 위치, 논리적 질서, 단락 전개방법,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영작문 지도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상옥, 이유진(2009)은 각 쓰기의 생성과정과 전략에 대해 비교하여 논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쓰기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에서 각 쓰기의 효과는 어떠한지, 학생들은 각기 어떤 쓰기 과정을 거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 있어 어떤 쓰기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비교, 차이 유무를 알아내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실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필사 연습이 효과적인 것으로, 좀 더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는 요약 연습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어 쓰기 지도 시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베껴 쓰기 방법을, 높은 학생들에게는 요약하여 쓰기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한다. 둘째, 베껴 쓰기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할 때에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읽기전략을 지도해야 한다.

2. 수준별 연구대상 분류

수준별 연구대상 분류는 표 3 과 같다. 총 20 편의 읽기 관련 논문 중 초등 4 편, 중등 6 편, 대학 8 편, 일반 및 종합은 2 편으로 집계된다. 쓰기 관련 논문은 총 18 편에서 초등 1 편, 중등 1 편, 대학 13 편, 일반 및 종합은 3 편으로 집계된다. 읽기와 쓰기 논문 둘 다에서 대학은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대상까지 포함하며, 일반 및 종합은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 3
수준별 연구 대상 분류

연구대상 유형	읽기	쓰기	합(%)
초등학교	4	1	5(13.2)
중등학교	6	1	7(18.4)
대학교	8	13	21(55.3)
일반 및 종합	2	3	5(13.1)
합계	20	18	38(100)

1)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 혹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읽기와 쓰기 관련 연구 논문은 총 5 편으로서 전체 38 편의 논문 중에서 13.2%에 해당한다. 읽기 관련 논문으로 이명신(2005)과 정영숙(2008)은 조기 영어교육의 교수 방법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영어그림책과 인터넷을 통합교과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현진(2005)과 손승희(2005)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있어 문자언어의 도입 시기 및 음성언어와의 균형된 언어 교육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쓰기 관련 논문으로 Kyu-Hwa Kim(2008)은 6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서에서 추출한 과제, 분리 기술 접근에 근거한 과제, 통합적 기능 접근법에 근거한 과제를 실시, 그 교육적 효과를 연구했다.

2) 중등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관련 논문은 총 7 편으로 38 편의 논문 중 18.4%에 해당되었다. 읽기 관련 논문은 정희정, 김지영(2008), 정대성(2000), 현태덕(2007), 이화자, 정미정(2007), 임혜정(2009), 김정렬, 신지연(2008) 등이 있고, 쓰기 관련 논문은 Jeongwan Lim(2007)이 있다.

3) 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아 총 21 편이었고, 55.3%에 해당하여 읽기와 쓰기 관련 논문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임을 알 수 있다. 읽기 관련 논문은 Kyu-Cheol Shin(2003), Minjong Song(2007b), 석진이(2005), 예진희(2004), 장복명(2005), 이명관(2006), 이현정, 정동빈(2008), 정동빈, 김혜경(2009) 등이 있고, 쓰기 관련 논문은 이현구(2000,

2001), 윤성규(2004), 김형엽(2006), Minjong Song(2007a, 2008), Eun-Mi Yang(2007), Jayeon Lim(2008), Eunsook Shim(2009), Sookyung Cho(2009), 박상옥, 이유진(2009), 이지연(2009), Eunsook Shim(2009) 등이 있다.

4) 일반 및 종합

구체적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연구한 논문은 총 5 편으로, 이는 13.2%에 해당되었다. 읽기 관련 논문에선 김형엽(2000)과 오관영(2001)등이 있고, 쓰기 관련 논문에선 최선겸(2001), Jong-Hee Lee(2008), Ock-Mo An(2009) 등이 있다.

3. 내용 접근별 분류

내용 접근별 분류는 표 4 와 같다. 총 20 편의 읽기 관련 논문 중 이론 및 문헌제시 연구 6 편, 정량적 연구 12 편, 정성적 연구 0 편,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통합이 2 편이 있다. 한편 쓰기 관련 논문 18 편에는, 이론 및 문헌제시 연구 4 편, 정량적 연구 1 편, 정성적 연구 4 편,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통합이 9 편 있다.

표 4
내용 접근별 분류

내용 접근 유형	읽기	쓰기	합계(%)
이론 및 문헌 제시 연구	6	4	10(26.3)
정량적 연구	12	1	13(34.2)
정성적 연구	0	4	4(10.6)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통합	2	9	11(28.9)
합계	20	18	38(100)

1) 이론 및 문헌제시 연구

이론 및 문헌을 분석한 연구는 총 10 편으로 전체 논문의 26.3%에 해당되었다. 읽기 관련 논문은 김형엽(2000), 오관영(2001), 김현진(2005), 이명신(2005), 정영숙(2008), 예진희(2004) 등이 있고, 쓰기 관련 논문은 최선겸(2001), 김형엽(2006), Jeongwan Lim(2007), Jong-Hee Lee(2008) 등이 있다.

2) 정량적 연구

통계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은 총 13 편으로 전체의 34.2%에 해당되었다. 읽기 관련 논문은 정량적인 연구가 정성적인 연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주로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실험 수업을 한 후 설문 조사나 학습의 성취도 향상을 측정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흔히 사용되었다. 읽기 분야에서는 손승희(2005), 정희정, 김지영(2008), 정대성(2000), 신규철(2003), 현대덕(2007), Minjong Song(2007b), 임혜정(2009), 김정렬, 신지연(2008), 석진이(2005), 이명관(2006), 이현정, 정동빈(2008), 정동빈, 김혜경(2009) 등이 있고, 쓰기 분야에서는 Sookyung Cho(2009)의 논문 한 편으로, 두 개의 실험에서 각기 이원분산분석과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정성적 연구

읽기 분야에서 정성적 연구로만 이루어진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쓰기 분야에서는 4 편의 논문이 있어, 이는 전체의 10.5%에 해당되었다. 이현구(2001)는 학생들의 영어 자유 작문 내용을 분석하였고, 윤성규(2004)는 학생들 작문의 오류 실태 파악을 위해 단문영작과 장문영작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회화의 오류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참여자 관찰과 역할극, 대화의 녹음과 표기 및 분석의 절차를 밟았다. Ock-Mo An(2009)은 편지 67 통을 4 개의 조치(서두, 불평, 요구, 끝맺음)로 분류하여 불평 구조를 분석하였다. Eunsook Shim(2001)은 논문 초록 두 편의 수사학적 구조와 주장할 때의 공손 전략을 조사하였다.

4)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통합

주관식 설문조사, 내용 분석, 면접, 인터뷰, 관찰 등을 사용한 정성적 연구와 5 점 척도 객관식 설문조사나 평가 등을 사용한 정량적 연구의 혼합형 논문은 총 11 편으로, 전체 논문의 28.9%에 해당되었다. 읽기 분야에서는 2 편의 논문, 장복명(2005)과 이화자, 김미정(2007)이 있는데, 둘 다 참여 관찰 수업을 통한 면접과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쓰기 분야에서는 9 편이 있는데, 먼저 이현구(2000)는 영작 내용을 분석하면서, 오류 빈도를 유형별로 숫자화하였다. Minjong Song(2007a, 2008)은 저널쓰기, 내용중심 피드백 및 포트폴리오 실시와 객관식 설문 조사, 성취도 평가 통계 처리 등을 병합하였다. Eun-Mi Yang(2007)은 저널 쓰기, 주관식 설문 조사 및 구두 면담 실시와 객관식 설문 조사, 통계 처리 등을 병합하였다. Kyu-Hwa Kim(2008)은 영작 내용 분석과 체크리스트 및 t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병합하였다. Jayeon Lim(2008)은 영작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현재완료 사용의 모든 예를 숫자화하고 비율을 정하였다. Eunsook Shim(2009)은 소고 쓰기, 주관식 및 객관식 설문 조사 통계 처리를 병합하였다. 박상옥, 이유진(2009)은

포트폴리오 및 주관식 설문 조사, 객관식 설문 조사, 성취도 평가 통계 처리 등을 병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지연(2009)은 think-aloud, 녹음 및 전사와 양적 분석을 병합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제기하였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로, 영어 읽기/쓰기 관련 게재 논문들이 주제, 수준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등에서 보이는 동향 파악과 게재 논문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였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및 향후의 연구 방향 제시였다.

우선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읽기 관련 논문들 총 20 편 중 교수 학습자의 변인에 관련된 기술과 전략에 관한 연구가 9 편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매체 활용 읽기 교육 연구가 6 편, 읽기 관련 이론에 관한 연구가 5 편 등이었다. 이는 따라서, 다독 및 속독이 절실히 필요로 되고 있는 현대 정보사회의 입장에서 고무적인 연구 동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시청각 교육매체 사용이 권장,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이론 관련 연구보다 교육매체 활용 연구 쪽으로 힘써야 하겠다. 한편, 쓰기 관련 논문들 총 18 편에는,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의 연구가 8 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결과 중심의 연구 3 편, 과정 중심, 결과 중심과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의 통합, 과정 중심과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의 통합 연구가 각 2 편이었으며, 결과 중심과 과정 중심의 통합 연구가 1 편으로 가장 적었다. 교수/학습자 변인 중심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쓰기 접근법으로서 작문 과정과 작문이 행해지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났다. 이 접근법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믿음, 작문 과정 연습, 교사 변인,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교실 환경, 동료 학습, 주제와 학습자의 전공, 영작과 평가, 포트폴리오 개발,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활용, 타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과의 상호연계 등을 주로 연구 주제로 삼는다. 그런데, 본 게재 논문들에서는 현대의 정보 기술 중심 사회에서 강조되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활용, 언어 기능 통합 교육 관점에서 강조되는 타 기능과의 상호연계를 다룬 논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두 방향의 연구에 힘써야 하겠다.

연구 대상별로 분류했을 때, 읽기 및 쓰기 관련 논문 둘 다 대학생 대상이 가장 많아(읽기 8 편, 쓰기 13 편) 총 38 편 중 21 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초등학생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읽기 4 편, 쓰기 1 편) 5 편을 맴돌았다. 이는 특히 쓰기 관련 논문에서 대학생을 위주(총 18 편 중 13 편)로 한 대상자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향후로는 쓰기 교육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초등(1 편)과 중등(1 편)을 대상으로 삼아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한 읽기 관련 논문에서도 초등 대상은 20 편 중 4 편으로 저조한 연구 동향을 보이는데, 읽기 교육이 강화된 개정 7 차 교육과정에 발 맞추어 초등 대상 읽기 연구에 향후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연구 방법별로 분류했을 때, 읽기 관련 논문에선 정량적 연구가 총 20 편 중 12 편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정성적 연구는 단 한편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심층적 분석으로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연구의 통합 연구도 2 편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의 읽기 연구로는 현행의 정량적 연구와 이론 및 문헌 제시 연구(6 편) 추세를 다소 지양하고, 학습자의 특성, 읽기 전략 등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정성적 연구 및 정량적, 정성적 연구의 통합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편, 쓰기 관련 논문에선 정량적, 정성적 연구의 통합 연구가 총 18 편 중 9 편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정량적 연구는 1 편에 불과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읽기 논문에선 정량적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12 편), 쓰기 논문에선 가장 적다는(1 편)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의 쓰기 연구로는, 현행의 이론 및 문헌 제시 연구(4 편) 추세를 다소 지양하고, 학습자의 작문 과정 및 결과를 명시할 수 있는 정량적 연구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지 문해 교육 연구 논문의 수(총 38 편)가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연구 동향 파악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문해 교육 연구 동향을 조사, 분석할 때는 타 학회들 학술지에 게재된 문해 교육 연구 논문들까지 포함시켜 하는 것이 그 결과를 좀 더 안전하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호. (2006). *영어교육* 학술지 40 년 영작연구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1(2), 97-114.
- 김정렬, 신지연. (2008). 추론 기능 지도가 수능 외국어 영역 읽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9(1), 188-213.
- 김현진. (2005). 의사소통중심의 초등영어 문자언어 지도 방안 연구. *현대영어교육*, 6(1), 61-80.
- 김형엽. (2000). 영어 문자들의 유래에 대한 소고. *현대영어교육*, 1, 51-68.
- 김형엽. (2006). 영어작문 교육에서 공동협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면담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7(2), 96-129.
- 박상옥, 이유진. (2009). 영어교육에서 빼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의 효과 비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0(2), 60-86.
- 박혜숙. (2006). *영어쓰기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석진이. (2005). 인터넷 영어 사례 분석 연구. *현대영어교육*, 6(1), 81-100.

- 손승희. (2005).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읽기, 쓰기 성취기준 조정에 대한 제언. *현대영어교육*, 6(1), 101-123.
- 예진희. (2004). 효과적인 웹 기반 대학 실용 영어 교육 방법론에 관한 제언. *현대영어교육*, 5(2), 154-172.
- 오관영. (2001). 제 2 언어 독서연구에 있어서 Schema 이론. *현대영어교육*, 2(1), 43-52.
- 오준일.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독해 관련 논문 분석. *영어교육*, 61(2), 73-96.
- 유현정. (2006). 학술지논문을 통한 영어교육학 연구동향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3), 339-368.
- 윤성규. (2004).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오류사례 분석. *현대영어교육*, 5(2), 131-153.
- 이명관. (2006). 웹을 활용한 영어 읽기수업이 대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7(1), 161-181.
- 이명신. (2005). 영어 그림책과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수법. *현대영어교육*, 6(1), 145-165.
- 이지연. (2009). 영작문 평가를 위한 채점자 훈련의 방향. *현대영어교육*, 10(3), 217-241.
- 이현구. (2000). 영어 자유 작문에서 나타나는 관사 오류 분석. *현대영어교육*, 1, 147-160.
- 이현구. (2001). 대학영어작문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오류 분석. *현대영어교육*, 2(2), 239-253.
- 이현정, 정동빈. (2008). UCC 과제가 대학생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9(1), 283-306.
- 이화자, 김미정. (2007). 수준별 영어 다독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 사례연구. *현대영어교육*, 8(1), 151-170.
- 임혜정. (2009). 고등학생의 영어성취도와 읽기 과제의 난이도가 독해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0(3), 242-266.
- 장복명. (2005). CCDL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영어의 이해와 적용. *현대영어교육*, 6(2), 182-204.
- 정대성. (2000). 제 2 언어습득에 있어서 언어 지식 발달에 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1, 179-213.
- 정동빈, 김혜경. (2009).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읽기 전·후 토론활동이 대학생의 독해학습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0(1), 251-283.
- 정영숙. (2008). 스토리를 활용한 영어 알파벳 읽기·쓰기지도법 개발. *현대영어교육*, 9(3), 232-256.
- 정희정, 김지영. (2008). 중등영어 읽기능력 평가문항 난이도 예측 변인 연구. *현대영어교육*, 9(1), 307-323.
- 최선겸. (2001). 단락 분석을 통한 영작지도. *현대영어교육*, 2(1), 103-139.

- 최연희, 전은실. (2006). *영어 읽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현태덕. (2007). 연어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8(1), 191-209.
- An, Ock-Mo. (2009). Analyzing complaint letters. *Modern English Education*, 10(3), 1-16.
- Cho, Sookyung. (2009). Patterns of sentence connectors and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ESL learners' writ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1-22.
- Ferris, D., & Hedgcock, J. S. (1998). *Teaching ESL composition: Purpose, process, and practice*. Mahwah, NJ: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R. C., & Tremblay, P. F. (1994). On motivation, research agendas and theoretical frameworks. *Modern Language Journal*, 78, 359-368.
- Hughes, J. E. (2000).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Exploring teacher learning and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Kim, Kyu-Hwa. (2008). Effects of the integrated-skills approach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riting performance. *Modern English Education*, 9(1), 52-72.
- Lee, Jong-Hee. (2008). Pedagogic relations of achievement goal model and critical literacy development in Korea's EFL contexts. *Modern English Education*, 9(3), 102-122.
- Lim, Jayeon. (2008). The lexical aspect of English present perfect in advanced L2 learners' writing. *Modern English Education*, 9(2), 42-57.
- Lim, Jeongwan. (2007). Responding to students' writing: Peer and teacher feedback. *Modern English Education*, 8(2), 59-74.
- Oxford, R. L., Cho, Yunkyung, Leung, S. & Kim, Hae-Jin. (2004). Effect of the presence and difficulty of task on strategy use: An expository study. *IRAL*, 42, 1-47.
- Shanahan, T., & Lomax, R. G. (1986).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oretical models of the reading-writing relationship.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116-123.
- Shim, Eunsook. (2001). Genre analysis of dissertation abstracts: A contrast between a Korean writer and an American writer. *Modern English Education*, 2(2), 75-96.
- Shim, Eunsook. (2009). An investigation of secondary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writing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0(1), 114-130.
- Shin, Kyu-Cheol. (2003).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EFL class. *Modern English Education*, 4(2), 3-16.
- Song, Minjong. (2007a). A promising practice for improving writing quality and decreasing writing apprehension of Korean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8(2), 113-135.
- Song, Minjong. (2007b). Teaching reading with an interactive approach: Using dialogue journals as a practice. *Modern English Education*, 8(3), 220-242.
- Song, Minjong. (2008). A dialogue journal study with Korean college freshmen. *Modern English Education*, 9(1), 168-187.

Yang, Eun-Mi. (2007). Degrees of preference for writing and L1 use behaviors of L2 writers. *Modern English Education*, 8(3), 243-269.

송민중

성결대학교 교양학부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00-10

Tel: (031) 467-8920/ H.P.: 010-2773-6650

Email: mjsong43@sungkyul.ac.kr

임정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 850-4125/ H.P.: 010-8983-0426

Email: jwlim@daegu.ac.kr

Received 31 May 2010

Revised 30 July 2010

Accepted 12 August 2010